

LG생활건강, 매출 감소 “큰일 났다”

1/4분기 2699억원으로 5.6% 줄어 ... 소비심리 회복 지연 크게 작용

LG생활건강이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2004년 1/4분기 매출액이 26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.6% 감소했다고 밝혔다.

화장품 사업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매출비중이 큰 전문점과 직판시장의 시황악화가 계속돼 매출이 감소했다.

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부는 시판이라 불리는 전문점과 직판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6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판시장은 38.4%의 역신장을 기록했고 시판시장도 10.3% 감소했기 때문에 분석된다.

생활용품 사업부 역시 주요 6대 제품의 시장지배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비주력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해 100억원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.

LG생활건강의 경영실적 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04.1Q	2003.1Q	증감률
매출액	2,699	2,859	▽5.6
영업이익	231	247	▽6.5
경상이익	237	250	▽5.2
당기순이익	166	176	▽5.7
영업이익율	8.6	8.5	▽0.1

LG생활건강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각각의 사업부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생활용품 사업부는 제품의 Premium화를 위한 Brand Renewal에 힘을 실을 방침이고, 화장품 사업부는 Brand 구조조정 및 유통채널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 Momentum을 확보할 계획이다.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04>